여수 거북선축제 앞두고 교통대책 비상

해마다 축제시기 몰려든 차량으로 도심 주차장화
시, 축제장 인근 학교 등 3000대 임시주차장 마련
4일 통제영길놀이 구간 차량통제…시내버스 연장

제52회 여수거북선축제가 4일부터 6일까지 여수시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제51회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제52회 거북선축제 개최를 앞두고 전남 여수시의 교통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해마다 5월 초 열리는 거북선축제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이 몰리면서 자루형 도시인 여수의 도심은 병목현상이 가중되면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52년째를 맞는 거북선축제는 4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광장과 해양공원 등에서 열린다.

축제 개막식은 4일 오후 8시 40분 해양공원에서 열리며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길놀이, 해상수군출정식, 해상불빛퍼레이드가 3일, 4일, 5일 각각 진행된다.

어린이날인 5일은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강강술래 등이 펼쳐진다. 셋째 날은 청소년밴드 페스티벌, 5관5포지역 매구공연, 춘향무 등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는 예년과 달리 시 전역에서 행사가 동시에 치러진다. 인기 높은 통제영길놀이는 도심에 설치된 3곳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된다. 퍼레이드를 관람하기 위해 도로에 모인 시민과 관광객들은 전광판을 통해 퍼레이드의 진행과 거리 이벤트를 볼 수 있다.

또 이순신 장군의 해상 출정식도 기존 40여척의 선박이 동원된 것에 비해 두 배로 늘려 웅장함을 더하고, 레이저쇼도 도입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거북선축제가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제영길놀이 등 교통난을 우려하면서 시민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축제현장을 찾은 차량들을 인근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해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은 여수여고·여수여중·중앙초 등 인근 학교와 박람회장 스카이타워, 국동 수변공원 등 10곳에 마련됐다. 주차가능 대수는 3000여대다.

거북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길놀이가 있는 4일에는 오림삼거리부터 종포해양공원까지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길놀이 구간을 운행하는 59개 노선 시내버스 166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40분까지 우회한다.

시는 막차시간을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까지 연장하고, 셔틀버스도 3개 노선 5대를 운행해 시민들의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공무원들도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한다. 인원은 200여 명으로 3일부터 6일까지 종포해양공원 등에서 교통지도, 질서유지 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봄 여행주간에 거북선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고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2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 등에서 개최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개의 영리함을 엿볼 수 있는 어질리티 장면.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개최

진도군, 5~6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어린이 행사 풍성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2018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페스티벌에서는 진도개의 우수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진도개 공연·경주·어질리티, 반려견과 함께하는 건강달리기 대회, 반려견 교감 체험, 진도개 높이뛰기 대회 등이 진행된다.

5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는 진도개 공연, 불꽃놀이와 마술쇼 등이 열리고, 진돌이 썰매장, 진도개 방사장, 어린이 놀이터, 동물농장, 강아지 체험장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토종견 최초로 인명구조견 적합 시험에 합격한 진도개 '철마'의 인명구조 시범이 함께 선보인다.

또 조랑말, 아기염소, 공작새, 앵무새, 토끼, 병아리, 기니피그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을 새롭게 개장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반려견 건강달리기 대회는 저링벨트를 착용한 반려견과 견주가 2㎞ 거리를 함께 달리는 경기로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도그 스포츠 경기로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질리티, 원반을 던져 개가 물어오는 프리스비, 허들 장애물 넘고 돌아오는 릴레이 경기인 허들 릴레이 경기가 펼쳐진다.

진도개사업소 관계자는 "축제기간 동안 새롭게 단장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진도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도개테마파크를 방문하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어버이날 맞아 부모님께 도로명주소로 엽서쓰기

무안군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5년차를 맞아 지난달 16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엽서 쓰고 도로명주소로 발송하기'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엽서와 홍보용 수첩을 제작 ? 배부하고 무안교육청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외계인의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애니메이션 시청을 통해 쉽고 재밌게 도로명주소 체계와 길 찾는 방법을 익히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엽서에 쓰고 우리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작성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가성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유용 미생물 활용

5년간 매년 30t 공급 협약 체결

완도군이 추진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유용미생물이 활용된다.

완도군은 2일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와 ㈜이엠사랑사업단이 유용미생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농축산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엠사랑사업단은 친환경 유기농업 내실화와 저비용 고소득 농산물 생산을 위해 5년간 매년 30t씩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한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4종의 유용미생물 가운데 필요한 미생물을 농가별로 1개월에 20 l 씩 최대 10개월까지 무상 지원한다.다.

유용미생물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오남용을 막고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의 밀도를 증가시켜 토양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 선정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수혜지역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역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제도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시 상가 침수, 상가지붕훼손, 간판 파손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총지원대상을 상가 586개소와 공장 126개소를 합한 712개소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가입 목표를 10%로 정하고 7천5백만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김흥필 기자